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이번주는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가
30명 내외로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종식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 소비 등
경제활동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과 경제가 무너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되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이행현황]

처음 금융부문 대응방안을 발표한

2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약 48만 8천건, 40조 9천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금융지원 추이 (누적규모)

	3.30일	4.6일	4.13일
신규 대출·보증	12.8만건, 9.1조원	21.5만건, 13.7조원	35.2만건, 19.6조원
(신규 대출)	(9.1만건, 7.2조원)	(15.7만건, 10.7조원)	(27.2만건, 15.6조원)
만기연장 원금이자납입유예	6.8만건, 9.9조원	9.4만건, 13.7조원	12.3만건, 20.2조원
기타 (금리우대 등)	1.1만건, 0.8조원	1.0만건, 0.9조원	1.3만건, 1.1조원
합계	20.7만건, 19.9조원	31.9만건, 28.3조원	48.8만건, 40.9조원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납입 유예는

약 12만 3천건, 20조 2천억원이 이행 되었으나

❶ 보증부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기준이

보증기관별로 상이하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있어

보증기관들의 상환유예 기준을

거치기간 특약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간 유예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❷ 한편 4월말 시행을 앞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경우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하여

집행과정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대책의 취지가
취약 개인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인 만큼

고객의 관점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정책 집행과정의 고리를 하나하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 애로사항 해결 지원]

그간 코로나19 금융권 대응 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와 평가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❶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❷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융공공기관 평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장직원들에게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하여 평가하고

* 총인건비상승률 지표 산정시 코로나19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을 조정하여 총인건비에 반영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현장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 [참고]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안

- ①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수익성 지표 삭제
- ② 적극적인 금융공급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건전성 지표 삭제
- ③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 신설

❷이와 더불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집중 청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와 금감원은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강화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 ☎ 1332▶6번,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접수된 애로사항은
실무 담당자가 관련사항을 파악해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의 제도개선 모범사례는 공유하고
주요 건의사항 이행현황도 꼼꼼히 챙겨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4. 마무리말씀]

지난 4월 14일 IMF에서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를
발표하였습니다.

IMF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1월}2.2% → -1.2%)하였으며
세계 경제성장률 또한 -3.0%로 전망하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예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
대응정책을 신속하게 펼쳐
코로나19 사태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IMF도 2021년에는 세계경제가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 세계 경제성장률 5.8%, 한국 경제성장률 3.4%

현재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은 물론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의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